

ISSUE BRIEFING

2020. 12. 11
Vol. 235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김시백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양상 및 대응 방안

CONTENTS

I. 지역산업연관표란 무엇인가?	02
II.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분석(2010년과 비교)	03
III. 산업구조 변화 시사점 및 대응 방안	07
IV. 부록	09

I. 지역산업연관표란 무엇인가?

1. 지역산업연관표 개요

-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내 산업간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산업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국을 지역경제 단위로 구분하여 지역간 이출입 및 지역 산업의 상이한 생산기술구조를 반영하여 작성한 투입산출표임
 - 특정 지역에서 사업이나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함
-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2010년 이전에는 개인이나 지역 연구원에서 지역 산업 구조 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한국은행이 2010년 기준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행 발표자료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2. 지역산업연관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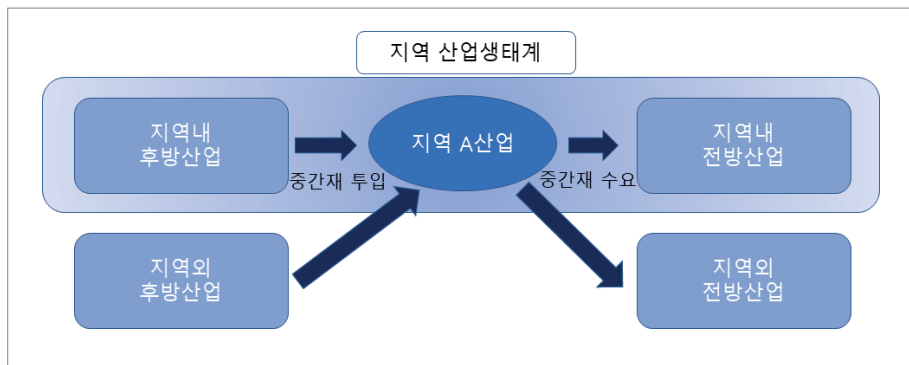
-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춘 구조분석 및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분석, 각종 경제정책 효과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한 통계자료임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함
 - 지역경제구조 분석 : 전라북도 내 산업간의 연관관계 분석(중간재의 투입 및 수요 규모), 타 지역 산업간의 교역 구조(중간재 이출입), 산업별 생산품의 수요 구조(지역내 소비·투자로 활용되는 구조) 등에 활용
 -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분석 :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가 각 지역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지역간 파급효과를 추정
 - 지역경제 정책효과 분석 : 도로, 항만 등 SOC 건설, 각종 지역행사 유치에 따른 관광객 소비, 지역내 산업단지 조성 후 공장 생산 활동 등 지역경제 개발 사업이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
- 2020년 7월에 한국은행은 201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공표하였으며, 지역산업연관표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산업 구조 변화 및 내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올해 발표된 201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는 당초 2018년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통계 자료의 정교화 및 정확성을 위해 수정을 하는 기간이 길어져 늦게 발표됨
- 본 이슈브리핑은 2010년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전라북도의 산업 생태계 변화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분석(2010년과 비교)

1.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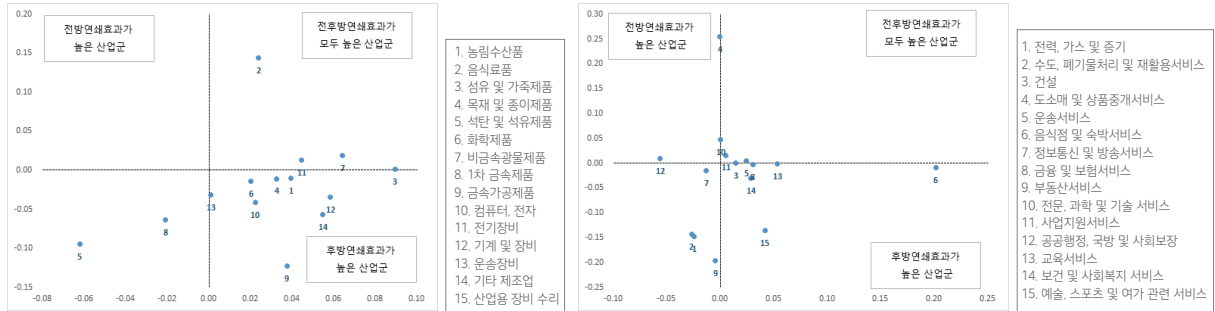
◎ 지역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 형성 여부

- 지역 산업 생태계에서 특정 산업은 <그림1>과 같이 생산 과정에서 타 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중간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생산품을 생산하고 이 생산품이 최종재로 소비되거나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구조임
- 만약 지역의 산업생태계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특정 산업의 지역 내 후방산업의 중간재 투입률과 전방산업의 중간재 수요율은 높아질 것임



<그림1> 지역 산업생태계 구조

- 2010년과 2015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산업의 전후방산업 생태계 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산업군은 1,2차 산업군 중에서는 식품산업, 비금속광물제품(탄소소재섬유 등 포함), 전기장비 산업이며, 3차 산업군 중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 산업임
 - 전후방산업 생태계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은 해당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가 지역 내 연관산업으로부터 쉽게 공급받고 해당 산업의 생산물이 지역 산업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뜻함
-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변화 양상을 보면, 지역내 후방연쇄효과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 산업의 벨류체인 형성을 위한 지역산업 정책효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정산업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조 형성에 있어 후방연쇄효과와 크기가 전방연쇄효과보다 더 중요함



〈그림2〉 전라북도 1,2차산업 지역내 전후방효과 변화 (2010~2015년)

〈그림3〉 전라북도 3차산업 지역내 전후방효과 변화 (2010~2015년)

- 전라북도 주력산업인 식품산업은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2010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식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재료 및 설비, R&D 지원 등의 후방산업 지원 뿐만 아니라 생산된 식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 구조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그림2 참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산업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며, 시군별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식품산업들이 로컬푸드나 지역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탄소섬유산업은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포함되는 산업으로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향상되었고 전방연쇄효과 역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그림2 참고)
 - 효성을 중심으로 한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초 재료 공급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후방산업들이 지역 내에 집적화하게 된 결과이며, 아직까지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요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탄소섬유와 융합된 수요산업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연쇄효과 역시 이후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전방효과와 후방효과 규모 차이가 발생함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의 경우, 후방연쇄효과가 매우 크게 향상된 산업군으로 지역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사용되는 식자재 및 물품 구입이 지역 상품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임(그림3 참고)
 - 지역 내에서의 상품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져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와 사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전방연쇄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다른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그림 3 참고)
 - 전라북도의 연구개발특구 및 R&D 관련 국가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로 이들 연구기관의 R&D 연구 결과물이 지역 산업 특히 제조업 생산에 크게 영향을 줌
- 종합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군인 식품산업, 탄소산업, 연구개발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연관산업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산업생태계로 바뀌고 있음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양상 및 대응 방안

◎ 지역 산업별 연관산업 영향력

-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지역내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산업과의 상호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임
 -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1보다 크면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해석
 -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할 때 해당 산업이 받는 영향 1보다 크면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해석
- 2015년 기준으로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은 식품산업이며, 지역 내에서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산업생태계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음
 - 이 외 전라북도에서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는 비금속광물제품(탄소섬유),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산업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음식적 및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영화산업)과 건설업을 꼽을 수 있음
- 2015년 기준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은 식품산업이며, 이는 전라북도 식품산업이 지역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함

2. 산업연관효과 변화

◎ 종합 평가¹⁾

-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특정 산업의 생산량이 1억원 증가 시, 연관산업 생산 증가량을 의미하며, 취업유발효과는 특정 산업의 생산량이 10억원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관산업 취업자 증가 규모를 의미함

〈표1〉 산업연관효과 관련 계수 변화(전산업 평균)

	전체			지역내			지역흡수율		
	2015년	2010년	변화율	2015년	2010년	변화율	2015년	2010년	변화량
생산유발효과	1.86	1.96	-5.2%	1.27	1.21	5.5%	68.5%	61.6%	6.9%p
부가가치유발효과	0.77	0.72	7.2%	0.54	0.48	12.0%	70.5%	67.5%	3.1%p
취업유발효과	13.11	17.29	-24.1%	9.89	13.00	-23.9%	75.4%	75.2%	0.2%p

- 생산유발효과는 전라북도 산업 생산량이 1억원 증가 시, 전국 생산은 1.36억원 증가, 전북 생산은 1.2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비교하면 전국 효과는 감소한 반면, 전북 효과는 오히려 증가함
 - 지역 내 산업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중 68.5%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과 비교하였을 경우 6.9%p 증가한 것으로 지역 경제로 환원하는 정도가 더 커짐

1) 산업연관효과의 모든 산업별 결과는 부록을 참고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전라북도 산업 생산량이 1억원 증가할 경우, 전국 부가가치는 0.77억원 증가, 전북은 0.4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전국 효과보다 전북 효과가 더 크게 증가함
 - 전체 부가가치 유발 효과의 70.5%가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3.1%p 높아져,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유발효과와 비교하였을 때, 지역 연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취업유발효과는 전라북도 산업 생산량이 10억원 증가할 경우, 전국 취업자는 13.11명 증가, 전북은 9.3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취업유발효과의 75.4%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0.2%p 상승하여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효과에 비해 지역효과율이 높아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기대 효과가 여전히 높음

◎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변화

-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증가함 (부록 1 참고)
- 전라북도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식품산업이며, 음식숙박업, 농어업, 비금속광물(탄소섬유) 및 정보통신산업이 전라북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산업에 속함
 - 식품산업의 생산이 1억원 증가할 경우, 전라북도 전체 산업의 생산규모는 1.5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라북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비금속광물산업(탄소섬유)은 생산량의 1.33배 만큼 전라북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1.24배와 비교할 경우 지역내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 변화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록 2 참고)
-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지역 흡수율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연관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됨
 - 전력, 가스 등 생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맞물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가가치 측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영향력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완공될 경우 전북 GRDP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 산업별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취업유발효과와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유발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부록 3 참고)
 - 취업유발효과가 감소한 것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노동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해 동일 생산 규모가 발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양상 및 대응 방안

- 하지만 취업유발효과의 지역 흡수율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 내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의 외부 유출 규모가 줄어들음
 - 다만, 전기장비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주력산업인 식품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 지역 내 취업 인력의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 지역효과 흡수율 : 식품산업 58.8%(2010년) → 57.0%(2015년)

III. 산업구조 변화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시사점

- 지금까지 전라북도 산업·경제 관련 통계 지표들은 총량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었고 지역의 산업 연관 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²⁾를 활용하여 분석하다 보니, 급격하게 변화되는 지역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물론 이번에 발표된 지역산업연관표는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 산업 구조를 100%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가장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었다는 점에서 자료 분석 가치가 충분히 있음
- 2015년과 2010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지역 산업생태계 구조는 2010년에 비해 2015년는 전후방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후방연쇄효과가 상승한 산업군들이 많아져 전라북도 주력산업들의 후방산업들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식품산업 및 탄소섬유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 자체의 성장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지역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또한 후방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유통서비스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의 경우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특구의 정착 노력 등으로 전방연쇄효과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라북도 전체 산업 생태계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으로 산업 성장의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로 흡수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수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2)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는 2010년, 2013년,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이며, 이 중 2013년 산업연관표는 2010년 산업연관표를 연장하여 추정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 산업연관구조는 2010년과 유사하게 나올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는 2013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는 2010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

- 앞으로 지역산업의 성장이 지역 내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후방산업의 기업 유치 및 집적화 뿐만 아니라 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수요 확보와 연구개발업의 성과 확산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산업구조 개편 방향

◎ 전북형 디지털 뉴딜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으로의 대기업 투자, 정부의 뉴딜 사업 추진과 맞물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됨
-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으나, SK의 데이터센터 투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사업이 앞으로 전라북도 주력 산업군을 D.N.A 산업 및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D.N.A 산업은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산업으로 지금까지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쉽게 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음

◎ 재생에너지 융합형 D.N.A. 산업 클러스터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과 전후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주력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재생에너지 융합형 D.N.A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단계별로 후방산업→전방산업→융합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탄소산업진흥원 지원을 활용한 수요산업 발굴

- 전후방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탄소섬유산업의 경우 최근 전라북도에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 산업의 성장에 더욱 가속화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탄소산업은 전라북도에 이미 충분한 후방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가운데, 약점 요인을 볼 수 있는 전방산업(수요산업)의 유치가 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탄소산업 벨류체인 형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생산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증가에 영향을 크게 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탄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간의 융합화를 통해 수소자동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 설비 등을 탄소소재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양상 및 대응 방안

IV. 부록

1.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비교

- 해당 산업의 생산량 1억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연관산업 생산 증가량

	전체			지역내			지역효과율		
	2015년	2010년	변화율	2015년	2010년	변화율	2015년	2010년	변화량
농림수산물	1.84	1.95	-5.4%	1.40	1.33	5.8%	76.3%	68.2%	8.1%p
음식료품	2.34	2.38	-1.7%	1.58	1.52	4.1%	67.5%	63.8%	3.7%p
섬유 및 가죽제품	2.06	1.99	4.0%	1.29	1.17	10.8%	62.6%	58.8%	3.9%p
목재 및 종이, 인쇄	1.88	1.88	-0.3%	1.26	1.21	4.0%	67.1%	64.3%	2.8%p
석탄 및 석유제품	1.87	2.48	-24.8%	1.18	1.25	-5.5%	63.0%	50.2%	12.9%p
화학제품	1.81	2.06	-12.2%	1.16	1.14	2.6%	64.3%	55.0%	9.2%p
비금속광물제품	2.06	2.08	-0.9%	1.33	1.24	7.3%	64.5%	59.6%	5.0%p
1차 금속제품	1.83	2.57	-28.8%	1.18	1.21	-2.4%	64.2%	46.9%	17.4%p
금속가공제품	2.10	2.41	-12.8%	1.25	1.20	4.2%	59.6%	49.9%	9.7%p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74	2.06	-15.6%	1.15	1.12	2.6%	66.3%	54.5%	11.8%p
전기장비	2.03	2.10	-3.7%	1.20	1.15	5.1%	59.5%	54.5%	4.9%p
기계 및 장비	2.22	2.38	-6.4%	1.26	1.18	6.8%	56.5%	49.6%	7.0%p
운송장비	2.49	2.44	2.0%	1.27	1.26	0.9%	51.1%	51.7%	-0.5%p
기타 제조업 제품	1.99	2.07	-3.9%	1.24	1.17	6.4%	62.6%	56.5%	6.1%p
전력, 가스 및 증기	1.31	1.96	-32.8%	1.13	1.16	-2.9%	85.9%	59.5%	26.4%p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71	1.93	-11.0%	1.21	1.24	-2.2%	70.7%	64.3%	6.4%p
건설	2.00	2.28	-12.0%	1.27	1.24	2.0%	63.2%	54.5%	8.7%p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65	1.70	-3.0%	1.24	1.23	0.7%	74.7%	72.0%	2.7%p
운송서비스	1.73	1.72	0.4%	1.20	1.17	3.1%	69.6%	67.8%	1.8%p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23	2.10	6.0%	1.57	1.26	24.8%	70.6%	59.9%	10.6%p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85	2.09	-11.4%	1.30	1.32	-1.2%	70.4%	63.2%	7.3%p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68	1.62	3.8%	1.26	1.21	3.8%	74.8%	74.8%	0.0%p
부동산서비스	1.35	1.40	-3.4%	1.15	1.15	-0.2%	84.9%	82.2%	2.7%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55	1.62	-4.2%	1.17	1.16	0.5%	75.3%	71.8%	3.5%p
사업지원서비스	1.49	1.54	-3.0%	1.18	1.17	1.2%	79.1%	75.8%	3.2%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27	1.44	-12.1%	1.09	1.16	-5.6%	86.4%	80.4%	6.0%p
교육서비스	1.51	1.35	11.6%	1.18	1.10	7.3%	78.1%	81.3%	-3.1%p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71	1.72	-0.8%	1.21	1.17	4.1%	71.1%	67.7%	3.4%p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68	1.81	-7.3%	1.25	1.18	5.9%	74.5%	65.3%	9.3%p
평균	1.86	1.96	-5.2%	1.27	1.21	5.5%	68.5%	61.6%	6.9%p

2.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비교

• 해당 산업의 생산량 1억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연관산업 부가가치 증가량

	전체			지역내			지역효과율		
	2015년	2010년	변화율	2015년	2010년	변화율	2015년	2010년	변화량
농림수산물	0.86	0.82	5.7%	0.69	0.62	12.2%	80.2%	75.5%	4.6%p
음식료품	0.74	0.67	9.9%	0.41	0.35	16.2%	55.7%	52.7%	3.0%p
섬유 및 가죽제품	0.61	0.57	8.3%	0.33	0.30	11.2%	54.2%	52.9%	1.4%p
목재 및 종이, 인쇄	0.64	0.51	24.6%	0.40	0.30	35.5%	62.7%	57.6%	5.0%p
석탄 및 석유제품	0.35	0.55	-36.7%	0.08	0.19	-60.7%	21.7%	35.0%	-13.3%p
화학제품	0.60	0.51	17.2%	0.37	0.27	34.0%	61.4%	53.7%	7.7%p
비금속광물제품	0.74	0.63	18.8%	0.46	0.37	26.7%	62.5%	58.6%	3.9%p
1차 금속제품	0.51	0.48	5.8%	0.29	0.19	51.4%	56.3%	39.3%	16.9%p
금속가공제품	0.75	0.64	18.0%	0.46	0.33	38.4%	60.8%	51.8%	9.0%p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64	0.55	15.9%	0.42	0.28	47.7%	65.4%	51.3%	14.1%p
전기장비	0.66	0.66	-0.2%	0.37	0.36	1.3%	56.1%	55.3%	0.8%p
기계 및 장비	0.71	0.65	9.1%	0.37	0.32	16.7%	52.2%	48.8%	3.4%p
운송장비	0.70	0.64	8.9%	0.30	0.30	0.4%	43.3%	47.0%	-3.7%p
기타 제조업 제품	0.65	0.76	-14.5%	0.37	0.47	-21.2%	57.5%	62.4%	-4.9%p
전력, 가스 및 증기	0.48	0.56	-14.8%	0.41	0.35	15.4%	85.2%	62.9%	22.3%p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88	0.76	15.7%	0.68	0.55	24.0%	77.3%	72.1%	5.1%p
건설	0.82	0.73	13.0%	0.55	0.42	29.5%	66.6%	58.1%	8.5%p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90	0.87	3.4%	0.71	0.68	5.0%	79.8%	78.5%	1.3%p
운송서비스	0.68	0.67	1.5%	0.48	0.50	-3.9%	71.1%	75.2%	-4.0%p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81	0.76	6.2%	0.53	0.47	14.5%	66.0%	61.2%	4.8%p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87	0.80	9.0%	0.61	0.48	27.8%	70.8%	60.4%	10.4%p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92	0.85	8.6%	0.71	0.67	5.7%	77.1%	79.2%	-2.2%p
부동산서비스	0.97	0.93	4.4%	0.87	0.83	5.1%	89.6%	89.0%	0.6%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89	0.82	7.9%	0.73	0.66	9.8%	81.6%	80.2%	1.5%p
사업지원서비스	0.91	0.88	3.7%	0.78	0.75	4.5%	85.7%	85.0%	0.7%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96	0.90	6.2%	0.88	0.80	10.3%	92.3%	88.8%	3.4%p
교육서비스	0.93	0.91	2.0%	0.79	0.82	-4.0%	84.9%	90.2%	-5.3%p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84	0.79	5.8%	0.64	0.61	5.7%	76.6%	76.7%	-0.1%p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89	0.82	9.5%	0.71	0.61	16.5%	79.7%	74.9%	4.8%p
평균	0.77	0.72	7.2%	0.54	0.48	12.0%	70.5%	67.5%	3.1%p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양상 및 대응 방안

3.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 비교

- 해당 산업의 생산량 10억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연관산업 취업자 증가 규모

	전체			지역내			지역효과율		
	2015년	2010년	변화율	2015년	2010년	변화율	2015년	2010년	변화량
농림수산물	26.84	37.28	-28.0%	23.83	31.86	-25.2%	88.8%	85.5%	3.3%p
음식료품	16.70	23.26	-28.2%	9.52	13.67	-30.4%	57.0%	58.8%	-1.8%p
섬유 및 가죽제품	10.03	16.51	-39.2%	5.68	11.25	-49.5%	56.7%	68.1%	-11.5%p
목재 및 종이, 인쇄	8.14	8.53	-4.6%	4.78	4.51	6.0%	58.7%	52.8%	5.9%p
석탄 및 석유제품	5.53	13.75	-59.8%	2.26	7.52	-69.9%	40.9%	54.6%	-13.7%p
화학제품	5.73	6.62	-13.4%	3.10	2.95	5.3%	54.2%	44.6%	9.6%
비금속광물제품	9.00	10.34	-12.9%	5.38	5.71	-5.8%	59.8%	55.3%	4.5%p
1차 금속제품	5.06	5.83	-13.2%	2.34	2.06	13.9%	46.3%	35.3%	11.0%p
금속가공제품	8.93	11.06	-19.3%	5.24	6.35	-17.4%	58.7%	57.4%	1.3%p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5.43	7.21	-24.7%	2.95	3.37	-12.3%	54.4%	46.8%	7.7%p
전기장비	7.14	12.42	-42.5%	3.62	7.67	-52.9%	50.7%	61.8%	-11.1%p
기계 및 장비	8.63	11.08	-22.1%	4.25	5.88	-27.7%	49.3%	53.1%	-3.8%p
운송장비	8.86	8.56	3.5%	3.87	3.13	23.4%	43.7%	36.6%	7.0%p
기타 제조업 제품	12.69	17.23	-26.4%	8.73	12.02	-27.4%	68.8%	69.8%	-0.9%p
전력, 가스 및 증기	2.22	6.25	-64.4%	1.58	3.54	-55.3%	71.1%	56.6%	14.5%p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1.86	11.09	6.9%	9.26	7.40	25.1%	78.1%	66.7%	11.3%p
건설	13.62	15.92	-14.5%	10.08	11.02	-8.5%	74.1%	69.2%	4.8%p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4.60	31.96	-23.0%	21.85	28.51	-23.3%	88.8%	89.2%	-0.4%p
운송서비스	18.39	24.22	-24.1%	15.89	21.10	-24.7%	86.4%	87.1%	-0.7%p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5.85	30.36	-14.8%	20.64	22.59	-8.7%	79.8%	74.4%	5.4%p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09	17.70	-43.0%	6.02	11.03	-45.4%	59.6%	62.3%	-2.7%p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0.49	15.53	-32.5%	7.83	12.28	-36.2%	74.7%	79.1%	-4.4%p
부동산서비스	5.82	14.30	-59.3%	4.58	12.74	-64.1%	78.7%	89.1%	-10.4%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2.93	20.29	-36.3%	10.73	17.25	-37.8%	82.9%	85.0%	-2.1%p
사업지원서비스	17.54	35.27	-50.3%	15.49	32.62	-52.5%	88.3%	92.5%	-4.2%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3.09	14.95	-12.4%	12.01	12.76	-5.8%	91.8%	85.3%	6.4%p
교육서비스	17.53	20.46	-14.3%	15.37	18.72	-17.9%	87.7%	91.5%	-3.8%p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9.98	20.56	-2.8%	17.24	17.21	0.2%	86.3%	83.7%	2.6%p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23.29	39.37	-40.8%	20.47	35.69	-42.6%	87.9%	90.7%	-2.8%p
평균	13.11	17.29	-24.1%	9.89	13.00	-23.9%	75.4%	75.2%	0.2%p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20. 12. 11 Vol. 235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